

# 2017년 전문간호사과정 85개 - 정원 680명

올해 전문간호사과정이 38개 교육기관에서 85개가 운영되며, 모집정원은 총 680명이다.

남서울대 대학원에 가정전문간호사과정(5명)이 신설됐다.

조선대 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과정, 경희대 대학원 임상전문간호사과정, 경북대 대학원 중환자전문간호사과정은 올해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

2017년 전문간호사과정별 교육기관 수 및 모집정원은 다음과 같다.

△가정전문간호사= 6개 (47명) △감염관리전문간호사= 3개 (35명) △노인전문간호사= 28개 (235명) △마취전문간호사= 1개(8명) △산업전문간호사= 1개(10명) △아동전문간호사= 1개(10명) △임상전문간호사= 5개(50명) △응급전문간호사= 4개(26명) △정신

전문간호사= 9개(52명) △중양전문간호사= 10개(92명) △중환자전문간호사= 7개(50명) △호스피스전문간호사= 10개(65명). (표 참조)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중양·임상·아동전문간호사 등 13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입학하려면 교육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간호사 자

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6518명이며,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1110명 △감염관리= 310명 △노인= 2102명 △마취= 64명 △보건의= 4명 △산업= 136명 △아동= 83명 △응급= 277명 △임상= 229명 △정신= 348명 △중양= 753명 △중환자= 625명 △호스피스= 477명.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 8164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1만4682명이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현황 (2017년도)

전문간호사 분야	교육기관 (정원)
가정(47)	가톨릭대 임상간호대학원(10), 남서울대 대학원(5), 대전대 대학원(7),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10), 우석대 대학원(5), 한양대 대학원(10)
감염관리(35)	가톨릭대 임상간호대학원(10), 건양대 대학원(10), 울산대 산업대학원(15)
노인(235)	가천대 간호대학원(5), 건양대 대학원(5), 경북대 대학원(5), 경상대 대학원(5), 경희대 대학원(10), 계명대 대학원(10), 고려대 대학원(10), 고신대 대학원(10),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10), 대구가톨릭대 의료보건과학대학원(10), 대전대 대학원(5), 동의대 대학원(10), 부산가톨릭대 대학원(10), 부산대 대학원(5), 삼육대 보건복지대학원(10), 성신여대 대학원(10), 아주대 대학원(10), 연세대 간호대학원(10), 을지대 임상간호대학원(10), 이화여대 대학원(10), 인제대 대학원(10), 인하대 대학원(5), 전남대 대학원(10), 전북대 대학원(10),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10), 충남대 대학원(5), 한림대 간호대학원(5), 한양대 임상간호정보대학원(10)
마취(8)	가천대 간호대학원(8)
보건(0)	-
산업(10)	가톨릭대 보건대학원(10)
아동(10)	연세대 간호대학원(10)
임상(50)	고려대 대학원(5), 아주대 대학원(10), 연세대 간호대학원(10), 이화여대 대학원(10), 한림대 간호대학원(15)
응급(26)	가천대 간호대학원(4), 아주대 대학원(10), 울산대 산업대학원(7), 인제대 대학원(5)
정신(52)	경북대 대학원(5), 계명대 대학원(5), 대구가톨릭대 의료보건과학대학원(5), 부산대 대학원(5), 을지대 임상간호대학원(5), 이화여대 대학원(10), 인제대 대학원(5), 충남대 대학원(5), 한양대 임상간호정보대학원(7)
중양(92)	가천대 간호대학원(8), 가톨릭대 임상간호대학원(10), 계명대 대학원(7), 고신대 대학원(10), 삼육대 보건복지대학원(7),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10), 연세대 간호대학원(10), 울산대 산업대학원(10), 전남대 대학원(10),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10)
중환자(50)	동아대 대학원(5), 부산대 대학원(5),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10), 연대 원주의대 대학원(10), 울산대 산업대학원(10), 인제대 대학원(5), 충남대 대학원(5)
호스피스(65)	가톨릭대 임상간호대학원(10), 경북대 대학원(5), 계명대 대학원(5), 고신대 대학원(5), 대구가톨릭대 의료보건과학대학원(5), 부산가톨릭대 대학원(10), 이화여대 임상보건과학대학원(5), 전남대 대학원(5), 충남대 대학원(5), 한양대 임상간호정보대학원(10)

## 병원간호사회, 2주기 영양병원 인증 준비 설명회

병원간호사회(회장·박영우)는 '2주기 영양병원 인증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1월 16일 개최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2주기 영양병원 평가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정연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연구개발실장이 '2주기 영양병원 인증제도의 변화' 주제로 강연했다. 2주기 영양병원 인증제도, 인증기준의 주요변화, 인증조사 및 결과판정의 주요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연이 실장은 "의료기관인증제는 환자안전은 물론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도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



김숙현 기자 shkim@

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기 인증기준 각 장별로 변화된 내용에 대해 소문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간호팀장, 이숙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담조사위원이 설명했다. 평가인증준비 사례를 김영숙 덕조은병원 간호부장이 발표했다.

## 전북간호사회 저소득가정에 '꿈꾸는 공부방' 선물

전북간호사회(회장·신화자)가 전북지역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제4호 꿈꾸는 공부방'을 지난 12월 26일 선물했다.

'꿈꾸는 공부방'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빈곤가정 아이들에게 주거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는 활동이다.

올해는 지방 누수로 인해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생겨 고생하던 저소득가정을 후원하기로 했다. 후원금 500만원으로 지붕에 방수페인트를 칠하고, 도배·장판·싱크대 등을 교체해줬다.

전북간호사회는 초록우산 어린



최수정 기자 schoi@

이재단과 2009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 '꿈꾸는 공부방'을 지원해 올해 4회째다.

신화자 회장은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보험심사간호사회 건강보험연수회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손순이)는 건강보험연수회를 지난해 4차례 개최했다.

보험심사간호사들이 보험정책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임상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매년 건강보험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연수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산정지침과 유방암수술

등이 다뤄졌다. 2차 연수회에서는 류마티스질환·신경외과수술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3차 연수회에서는 개편된 초음파검사수거에 대한 설명과 장이식수술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4차 연수회에서는 2017년 건강보험수거와 환자분류체계 개정 내용 등이 다뤄졌다.

김숙현 기자 shkim@

## 산업간호사회 근로자건강센터 4곳 운영

산업간호사회(회장·정혜선)가 경산, 원주, 전주, 경기북부 등 4곳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가 없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질병을 관리하고 직무스트레스, 직업환경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업건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산업간호사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운동처방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 좋은 프리셉터 되기 전략

### 프리셉터 행동유형 이해하고 맞춤형 교육

#### '학생에서 간호사로' 사회화 도와줘야

"좋은 프리셉터가 되기 위해서는 프리셉터의 행동유형을 파악해 나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리셉터는 프리셉터가 간호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성공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게 돕는 '사회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병원간호사회는 '프리셉터 역량 다지기' 주제로 교육을 열어 프리셉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공유하고 조언했다.

△프리셉터 행동유형 파악하기= 박보영 센토스 대표는 "프리셉터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하게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프리셉터의 행동유형을 파악해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유형을 이해하게 되면 프리셉터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나와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갈등상황에서 상처받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폭넓게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행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DISC 분석'을 소개했다. DISC는 인간의 행동스타일을 분석해 주도성(Dominance), 사교형(Influence), 안정성(Steadiness), 신중성(Conscientiousness)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중증과 공감 의사소통= 박보영 대표는 "좋은 프리셉터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증과 공감을 바탕으로 긍정적 의사소통

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긍정적 의사소통에서는 첫 반응이 가장 중요하며, 하던 일을 멈추고 프리셉터의 이야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다. 대화 중중 호칭을 자주 부를수록 존중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대화 시 상대방에게 10cm 다가서라. 앉았다면 의자에서 등을 떼, 서있다면 한 발 앞으로 내디뎌 10cm 다가서라.

△사회화 촉진자 역할해야= 김은경 세브란스병원 교육파트장은 "최근 프리셉터에게는 프리셉터가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성공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셉터가 조직의 규범이나 관습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하고, 동료 및 부서 직원과의 관계 형성을 잘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프리셉터가 '간호대학생'에서 '간호사'로, '가정의 구성원'에서 '직장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을 단순하게 전달하라= 김영미 서울대병원 간호과장은 프리셉터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교수전략을 소개했다.

핵심을 단순하게 전달하라. 구체적인 언어로 제시하라. 쉽게 가르쳐라. 프리셉터를 신뢰하고 믿게 만들어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목소리의 억양, 강약, 속도, 침묵을 적절하게 활용하라. 프리셉터와 눈을 맞추라. 질문을 통해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고 이해도를 점검하라.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줘라.

김숙현 기자 shkim@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6개 권역센터

www.RNjob.or.kr

- 서울·강원 ☎ 02)2268-2631~3
- 인천·경기 ☎ 032)441-2926
- 대전·충북·충남 ☎ 042)825-0749
- 대구·경북 ☎ 053)756-8487
- 부산·울산·경남 ☎ 051)442-3824~5
- 광주·전북·전남·제주 ☎ 062)222-5025



#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 더 JUMP!

20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